

말레이시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2
VI . 종합의견	12

말레이시아

I. 일반개황

면적	330천 Km ²	GDP	1,865억 달러(2007년)
인구	27.2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6,856달러(2007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M\$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3.44(2007년)

- 말레이시아는 전자, 기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 고무, 주식, 원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도 풍부함.
-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바 정보통신기술,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에 힘쓰고 있음.
- 말레이계(62%), 중국계(23%), 인도계(7%)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8년 3월 총선에서, 여권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하원 222개 의석 가운데 140석을 확보하여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이자 안정 의석인 원내 3분의 2석 확보에 실패하였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제성장률	5.8	6.8	5.0	5.9	6.3
재정수지 / GDP	-5.0	-4.1	-3.6	-3.3	-3.3
소비자물가상승률	1.0	1.5	3.0	3.6	2.0

자료 : IFS, EIU

□ 2007년, 6.3%의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

- 말레이시아 경제는 양호한 수출 실적,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2003년부터 본격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7년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민간투자 증가, GDP의 45%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10.3% 성장 시현 등으로 인해 6.3%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는 관광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숙박업, 외식업, 도소매업 등 관련 산업이 높은 성장을 보였음.
- 2008년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국내 수요와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안정화

-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소비회복 등의 요인으로 최근

8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3.6%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링깃화의 강세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 정부의 생필품 가격 안정화 대책 등으로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에는 링깃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2007년 대비 소폭 증가한 2.8%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감소 추세

- 동국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3~5% 수준의 다소 과도한 적자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과 세원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개선 추세에 있음. 2006년부터는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The Ninth Malaysia Plan: 2006~2010년)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석유수입과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원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7년에는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수입이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수준인 -3.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져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대외거래 편중현상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 말레이시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등 제조업 부문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발달해 왔음.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제조업 수출이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거래 편중현상이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6년 기준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1%에 달

하고 있으며, 수출지역도 미국, 일본, EU 등에 집중되고 있어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에 따라 수출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임.

- 또한 전자산업 등의 부문에서 재료와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지 않아 수출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수입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노동력 부족 현상

- 말레이시아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부문에서 모두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따라 주로 비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플랜테이션과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필요한 숙련노동인력은 인근 국가로부터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태임.
- 한편 정부는 현재 22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2009년까지 180만명으로 줄이고 연차적으로 감축해 2015년에는 150만명선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자국민의 고용 증가를 위한 대책임. 이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과 비용 증가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
- 최근 임금수준을 비롯한 사업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인근 국가들에 비해 약화된 상태임. 한편, 1969년 소요사태 이후 계속되어 온 원주민(bumiputra) 우대정책 역시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나. 성장잠재력

□ 주변 국가에 비해 잘 갖추어진 인프라

-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나 인종, 문화적으로 ASEAN, 중국, 인도 등 현재 세계적으로 주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에 접근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ASEAN 국가들에 비해 도로, 항만, 통신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이는 경제부흥 시기에 이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였기 때문으로 경제위기 때 잠시 주춤했던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인근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구조의 토대 위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풍부한 자원

- 말레이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주석 등 광물자원, 목재와 야자유, 고무 등 농산자원을 비롯한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야자유 생산국가로서 최근 식이요법과 대체에너지 활용 등으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적인 상품 가격 상승과 투기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빠른 추세로 상승하고 있음.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달러 표시 야자유 선물 시장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투자수요 증가,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해서, 원유는 21년, 천연가스는 34년 사용할 수 있는 잔존량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말레이시아는 2006년 기준, 카타르에 이어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으로서 일본, 한국, 대만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실시

-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정보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다양함. 또한,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을 강하게 추진 중인데 최고 경영자를 정치인이 아닌 젊은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등 다양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200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The Ninth Malaysia

Plan: 2006~2010년)을 발표하였으며, 8차 계획기간(2001~2005년) 동안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다소 부진한 경제성장을 나타냈으나,

- 9차 계획기간에는 더욱 견고해진 거시경제 기반과 세계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9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①국가경제의 부가가치 제고, ②국가 생산성 및 혁신능력 향상, ③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설적 대응, ④삶의 질 향상, ⑤행정실행능력 제고 등이며, 5년간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
경 상 수 지	13,381	15,079	19,980	25,488	30,240
경 상 수 지 / GDP	12.9	12.1	14.6	16.3	16.2
상 품 수 지	25,710	27,573	33,155	36,698	38,119
수 출	104,999	126,817	141,808	160,842	173,601
수 입	79,289	99,244	108,653	124,144	135,482
외 환 보 유 액	42,772	64,906	69,377	81,724	100,635
총 외 채 잔 액	48,557	52,156	51,981	52,526	53,384
총 외 채 잔 액 / GDP	46.7	41.8	37.9	33.7	28.6
D . S . R .	7.9	6.2	5.6	4.0	4.8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흑자 기조 유지

-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수요 증가와 원유, LNG, 야자유 등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민간소비와 투자확대로 인한 수입규모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수출입이 각각 전년 대비 7.9%, 9.1% 증가하며 381억 달러의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상품 수지 흑자 에도 불구하고, 최근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주요 수출국(미국, 유럽 등)의 경기 둔화로 인

해 전체 수출액의 51%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의 수출 증가가 둔화되며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 확대

-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증가 추세,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인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에 따라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2007년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18.6%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6.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외환보유액 수준도 월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2007년 6.8개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 낮아

- 2007년 총외채규모는 534억 달러 수준이나, GDP 대비 총외채 수준은 2003년 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D.S.R도 2006년 4.0%, 2007년 4.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치를 기록 중이고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보유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기 간내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08년 3월 총선 결과, 여권 안정의석 확보 실패

- 2008년 3월 12대 총선에서 압둘라 바다위 총리의 통합말레이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주도하는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하원 222개 의석 가운데 140석을 차지하는데 그쳐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이자 안정의석인 원내 3분의 2석(148석) 확보에 실패하였음.

- BN은 2004년 11대 총선에서 219석 가운데 199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바 있어 이번 결과로 인해 바다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전망이다. 한편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후 지금까지 50년간 집권해온 BN이 안정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1969년 총선 이후 처음임.
- 또한 BN은 총선과 함께 실시된 13개 주의 주의회 선거에서도 4개주에서 과반의석을 야당에 넘겨주었음.
- 여권의 이번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다수계인 말레이족 우대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소수계인 중국계와 인도계의 강한 반발임. 또한 바다위 총리와 여권이 집권 초기 약속했던 부정부패 척결, 관료주의 타파, 언론의 자유 강화 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점도 기존 지지층이던 말레이계의 실망을 사며 지지하락으로 이어졌음.

□ 여권 우위의 안정된 정국 유지 전망

- 2003년 10월, 22년간 집권한 마하티르 총리가 신임 압둘라 바다위 총리에게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완료한 이후 집권당인 국민전선(BN)이 의회 다수석을 확보하며 안정된 정국이 유지되고 있음.
- 총선에서의 지지하락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여전히 전체 의석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야권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법률 제정이 가능함. 반면 야권은 정치경험 부족, 당간의 정치이념 및 지지계층 상이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여전히 여권 우위의 안정된 정국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바다위 총리는 총선 패배 책임론, 지도력에 대한 의문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전망이다.

2. 사회동향

□ 인도계 집단 시위

- 2007년 11월 25일, 인도계 권익옹호 단체인 '힌두권리행동의 힘(Hindu

Rights Action Force, HINDRAF)가 중심이 된 인도 소수계 1만 여명이 시내 중심 및 인도사원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음.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소수민족은 공무원과 사기업으로의 취업의 기회가 적고, 기업 설립 및 대학 입학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말레이족 우대정책 폐기를 주장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족 62%, 중국계 23%, 인도계 7%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는 1969년 부유한 중국계에 대한 말레이족의 불만이 대규모 인종폭동으로 이어져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말레이족에게 정치적, 경제적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수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말레이족 우대정책으로 인해 말레이족의 소득과 경제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중국계의 평균 가계소득은 말레이족에 비해 64% 더 많고, 인도계의 평균 가계소득은 말레이족에 비해 27% 더 많은 상황임.

- 소수계의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종에 대한 배려 및 사회적 화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회불안 및 대규모 소요가능성 낮아

- 다양한 민족구성, 소득격차 및 말레이인 우대정책 등으로 민족간 갈등요소는 상존하고 있고 최근 들어 중국계, 인도계 등의 시위가 이어지고 총선에서의 야권지지 등으로 소수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나, 민족간/계층간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엄격한 집회 및 시위 통제 등으로 단기간 내 급격한 사회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3. 국제관계

□ 비동맹, 온건중립 외교노선 유지

- 영토와 인구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중소국인 말레이시아는 비동맹, 온건중립, 명분중시의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ASEAN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 및 유엔, 이슬람회의기구(OIC) 등

을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적극 활동 중임.

□ 미국과의 FTA협상 추진 및 주변국과의 관계

- 대말레이시아 주요 투자국이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대미협력을 통한 양국간 교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족 우대정책을 문제 삼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음.
-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노동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주변국인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우려됨.
- 한편, 태국 남부 말레이계 주민들을 둘러싼 태국과의 갈등, 영토분쟁과 불법체류 근로자 추방 문제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갈등, 용수공급 및 전투기 영공침범으로 인한 싱가포르와의 갈등이 발생한 바 있으나,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상태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대외지급능력 양호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 신규 차입 감소 등으로 외채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D.S.R. 및 단기외채/GDP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외채관리 양호

- GDP 대비 총외채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D.S.R도 2006년 4.0%, 2007년 4.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치를 기록 중이며,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의해 외환보유액도 증가 추세에 있어, 외채상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는 기업들의 단기 외채 사용보다는 중장기 외채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2006년 기준으로, 단기외채는 총외채의 22.5%, 외환보유액의 14.4%에 불과해 외채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 S&P, 무디스, Fitch 등 세계 3대 민간신용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S&P는 '07년 7월 31일, 말레이시아 정부의 건전한 외채 관리, 수출 증가 등 대외유동성 풍부, 공공부문 개혁 추진 등을 근거로 향후 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조정하였음. 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A- 유지
- OECD : 2등급(06/4) → 2등급(07/4)
- ICRG : 29/140(07/1) → 25/140(07/7) → 26/140(08/2)
- Euromoney : 50/185(06/9) → 50/185(07/3) → 49/185(07/9)
- II : 38/173(06/9) → 38/174(07/3) → 36/174(07/9)
- Moody's : Baa2(00/10) → Baa1(02/9) → A3(04/12)
- S&P : BBB(99/11) → BBB+(02/8) → A-(03/10)
- FITCH : BBB(99/12) → BBB+(02/8) → A-(04/11)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주요 ECA의 인수 태도

- 미국 수은 : 전액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최고 부보율 적용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전통적 우방국으로 경제협력에서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양국은 최근 들어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업화 수준이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반면, 원유, 천연가스, 고무, 주석, 목재 등 자원이 풍부해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보이며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교역은 석유/가스 수입의 영향으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수출 57억, 수입 8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는 '07년말 현재 1,213건, 705백만 달러를 기록 중임.
- 2007년 기준 대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27.8%), 컴퓨터(8.8%), 무선통신기기(5.5%)이며, 주요 수입품은 천연가스(25.6%), 원유 및 석유제품(20.7%) 등임.

(단위: 천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4,608,171	5,227,178	5,704,248	전기기기, 기계류, 운송기기
수 입	6,011,639	7,242,466	8,442,225	석유/가스, 전기전자제품

VI. 종합 의견

- 말레이시아 경제는 양호한 수출 실적,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2003년부터 본격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 서비스 부문의 성장 등으로 6.3%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3월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이자 안정의석인 원

내 3분의 2석 확보에 실패하였으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야권이 정치경험 부족, 정치이념 상이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권 우위의 안정된 정국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D.S.R 등 외채관련 지표가 양호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